

‘미운 오리’서 ‘백조’로 화려한 비상



다시보는 KIA 2017 시즌
〈3〉 3번 타자 버나디나

미운 오리

**빅리거서 인정받은 수비 실력·스피드에 ‘기대 한몸’
시즌초 한국야구 적응못하며 부진…퇴출 위기 몰려
백조**

**적응 마친 5월부터 공·수 맹활약…해결사 등극
타이거즈 외국인 첫 사이클링 히트·20~20 달성
한국시리즈 홈런 등 7타점·5할 타율 ‘또다른 MVP’**

흥겨웠던 KIA 타이거즈 버나디나의 KBO리그 도전기 결과는 행복한 우승이었다.

버나디나가 그라운드를 돌 때는 관중석과 닥아웃이 함께 들쭉였다. 특유의 헬멧 세러모니에 맞춰 팬들과 동료들은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홈런타자를 반겼다.

한국시리즈 우승 현장에서는 팬들이 뜨겁게 버나디나의 이름을 연호해주었다. 버나디나는 KIA의 통합우승이 결정됐던 한국시리즈 5차전 경기 전까지 유력한 MVP 후보였다. 버나디나는 1차전 추격의 스리런을 시작으로 4차전까지 8개의 안타로 6타점을 만들며 두산 마운드를 흔들었다.

그리고 5차전 첫 타석에서도 내야안타를 기록한 그는 두 번째 타석에서는 선제점을 만드는 적시타를 때렸다. 버나디나의 안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선 KIA는 이범호의 만루포로 5차전 분위기를 끌고 왔다.

버나디나의 KBO리그 첫 가을잔치 성적은 19타수 10안타(1홈런) 타율 0.526, 7타점, 2차전 완봉승의 주인공 양현종이 5차전 슈퍼 세이브까지 기록하면서 MVP에 올랐지만 팬들은 ‘타선의 MVP’ 버나디나를 잊지 않았다. 한국시리즈 MVP 시상식 이후 잡설 원정석을 가득 채운 KIA팬들은 버나디나의 이름을 외치며 박수를 보냈다.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첫 우승 도전이다. 나를 빛낼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힌 그는 자신의 각오대로 2017 한국시리즈의 빛나는 별이 됐다.

끝은 거창했지만 시작은 미약했던 버나디나였다.

KIA 스프링캠프 연습경기 마수절이 홈런의 주인공이 되는 등 버나디나는 캠프에서 올 시즌 기대주로 눈길을 끌었다. 빅리거에서 이미 검증받은 수비 실력과 스피드, 성실하게 동료들과도 잘 어울리면서 순조롭게 KBO리그 도전을 시작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좀처럼 시동이 걸리지 않던 버나디나였다. 안타는 물론 볼넷도 만들지 못하면서 기동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다. 공격을 열지 못하는 톱타자가 되면서 성급한 이들은 버나디나의 ‘퇴출’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낮은 리그에서의 적응이 끝난 뒤, 버나디나는 전혀 다른 선수가 되어있었다.

설 새 없이 그라운드로 뛰어나간 그는 시원한 한방 실력까지 과시하면서 팬들을 환

호시켰다. 버나디나의 홈런은 ‘헬멧 세러모니’를 부르는 흥겨운 축포이기도 했다. 머리를 짧게 자르면서 커져 버린 헬멧 덕분에 우연히 탄생한 세러모니였다. 동료와 팬들이 큰 헬멧을 손으로 누른 채 그라운드를 뛰는 버나디나를 따라 하면서 ‘헬멧 세러모니’가 완성됐다.

버나디나는 “함께 세러모니를 하면서 나를 맞아주는 게 놀랍고 행복하다”며 헬멧 세러모니를 좋아했다. 팬들이 불러주는 흥겨운 응원가도 버나디나에게는 특별했다. 그는 시즌 종료 후 진행된 KBO리그 시상식에서 득점상 수상자로 단상에 올라, 사회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응원가를 부르며 웃기도 했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풍선껌을 불며 그라운드를 누볐던 흥겨운 버나디나. 하지만 그라운드에서 오르기 위해 준비하는 버나디나는 늘 진지했다.

버나디나는 “만족은 없다. 시즌 마지막까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신에게 늘 부족한 점수를 줬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그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다. 특히도 열심이었던 그의 노력은 타이거즈 외국인 사상 첫 사이클링 히트와 역시 첫 ‘20(홈런)~20(득점)’으로 이어졌다. 1번에서 시작해 3번 자리에서 ‘해결사’로 활약을 하며 통합 우승도 만들어냈다.

버나디나는 “잊지 못할 한 해를 보냈다. 우리 팬들 대단했다”며 타이거즈 선수로서의 2017시즌을 말했다. KIA 구단은 ‘우승 멤버’와 함께 간다며 2018시즌을 이야기했다. 내년 시즌에도 KIA 팬들이 버나디나와 헬멧 세러모니를 함께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버나디나 월별 성적

구분	경기수	타수	타율	득점	안타	2루타	3루타	홈런	타점	도루	볼넷	사구	삼진
3~4월	25	98	0.255	15	25	3	0	1	9	9	8	3	19
5월	24	93	0.312	21	29	7	2	5	20	1	7	2	22
6월	24	103	0.350	28	36	5	3	6	25	7	9	0	19
7월	20	78	0.333	21	26	3	0	5	16	4	9	3	14
8월	21	90	0.356	19	32	3	1	5	19	5	2	2	16
9월이상	25	95	0.316	14	30	5	2	5	22	6	6	1	22

박성현, LPGA 전관왕 할까

오늘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개막…세계랭킹·올해의 선수 1~3위 초박빙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슈퍼루키’ 박성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타이틀을 쓸쓸이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미 신인왕을 확정했고 상금 1위를 달리는 박성현은 지난 6일 세계랭킹 1위에 등극했고 올해의 선수는 유소연이, 평균타수는 렉시 톰프슨(미국)이 각각 1위에 올라 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평산산(중국)이 토드 재팬 클래식에서 이어 블루베이 LPGA에서도 우승하며 타이틀 경쟁을 혼전으로 만들었다.

박성현은 일주일 만에 세계랭킹 1위와 선수 포인트 2위 자리를 평산산에게 내줬다. 세계랭킹이나 올해의 선수 1~3위 사이의 점수 차이는 미세하다.

박성현, 유소연, 평산산, 톰프슨은 마지막 결전을 남겨두고 있다.

16일부터 미국 플로리다 주 네이플스 티뷰론 골프클럽(파72·6556야드)에서 열리는 시즌 최종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이다. 이 대회 결과에 따라 올해의 선수와 세계랭킹 1위는 물론 상금왕과 베어트로피(평균타수 1위 트로피)의 주인공도 바뀔

수 있다.

올해의 선수 포인트는 우승자에게 30점, 2위 12점, 3위 9점을 주며 4위부터 10위까지는 7점부터 1점까지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1위 유소연이 162점으로 평산산(159점), 박성현(157점), 톰프슨(147점)이 3~15점 차이로 바짝 추격하고 있다.

박성현, 유소연, 평산산은 세계랭킹 1위 라이벌이기도 하다. 평산산의 랭킹 포인트는 8.46점, 박성현은 8.44점, 유소연은 8.43점으로 초접전 상황이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62만5000달러다.

유일하게 200만 달러 이상의 상금을 모은 박성현(226만2472달러)도 1위를 안심할 수 없다. 상금 2위 유소연(196만4425달러)이 우승하면 상금왕 주인공도 바뀔 수 있다.

평균타수에서는 톰프슨이 69.147타로 최저를 자랑한다. 박성현이 69.259타로 2위, 전인지가 69.269타로 3위를 기록 중이다. 최저 평균타수는 박성현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타이틀로 톰프슨보다 9~10타를 더 줄여야 베어트로피를 차지할 수 있다.

‘레이스 투 CME글로벌’도 있다. 시즌 성적을 포인트로 환산하는 레이스 투 CME 글로벌에서 1위를 차지하면 100만 달러의 보너스 상금을 받는다. 톰프슨이 5000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 박성현(4750점), 평산산(4500점), 유소연(4250점), 브룩 헨더슨(4000점)이 톱5를 이루고 있다.

/연합뉴스

NC 장현식, 일본전 선발

오늘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 2017 개막전

우완 강속구 투수인 장현식(22·NC 다이노스·사진)과 야부타 가즈키(25·히로시마 도요카프)가 16일 오후 7시 일본 도쿄돔에서 열리는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 2017 개막전인 운명의 한일전에서 선발로 격돌한다.

선동열(54) 한국 야구대표팀 감독과 이나바 야쓰노리(45) 일본 야구대표팀 감독은 15일 도쿄돔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장현식과 야부타를 각각 선발 투수로 예고했다.

빠른 볼의 위력으로는 장현식과 야부타 모두 팀 내 최강을 자랑하는 선발 투수여서 개막전부터 빅뱅을 예고했다.

장현식은 정규시즌 31경기에서 9승 9패 134.1이닝 평균자책점 5.29를 거둔 우완 정통파 투수다.

정규시즌에는 다소 기복을 보였지만, 롯데 자이언츠와 준플레이오프에 선발 등판해 7이닝 3피안타 1실점(비자책점)으로 눈부신 호투를 펼쳤다.

선 감독은 “장현식이 한국의 페넨트레이스부터 큰 경기까지 자기 볼을 충분히 던졌다. 잠재력이 굉장히 좋은 투수다. 도쿄돔은 첫 경험이지만, 가지고 있는 것만 던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일본의 기동력을 대비하다 보



니 슬라이드 스텝이 좋은 장현식을 선택하게 됐다. 컨디션도 상당히 좋다”고 말했다.

이에 맞설 야부타는 우완 강속구 투수로 일본프로야구 정규시즌 15승 3패 3홀드 평균자책점 2.58을 거뒀다.

이나바 감독은 “히로시마에서 올해 승리가 많았다. 강한 스트레이트(직구)를 던진다. 한국 타자가 스트레이트 계통에 강하다는 정보를 취했지만, 자기 피칭을 해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올해 출범한 APBC는 한국, 일본, 대만 3개 나라의 만 24세 이하, 프로 3년 이하 선수들이 격돌하는 국제대회로 4년마다 열린다.

한국은 17일에 대만과 2차전을 치른다. 홍이중 대만 감독은 우리나라와의 경기에서 일본프로야구 지바 롯데 마린스에서 뛰는 좌완 천관위(27)를 예고했다.

홍 감독은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천관위를 한국전 선발로 결정했다. 국제경험이 많은 선수다. 한국을 앞에 두고 제대로 싸워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회 결승전은 19일 오후 6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광주시체육회 전국체전 선수단 해단식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광주시를 빛낸 선수단 시상상을 위한 해단식이 열렸다.

〈사진〉

광주시체육회는 15일 광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세미나실에서 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 임원, 선수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체육대회 해단식을 가졌다.

광주선수단은 이번 체전에서 역대 최다 금메달(54개) 획득이라는 큰 성과를 거뒀다. 또한 양궁에서 세계타이거목, 수영과 수중민수영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하는 등 연패, 다관왕, 신기록 부문에서 최고의 성과를 올렸다.

종합 1위에 오른 궁도, 당구, 양궁 등 3개 종목과 2위를 차지한 스쿼시, 승마, 산악 등 3개 종목, 3위를 차지한 근대5종, 골프 등 2개 종목 대표에게 공로(표창)패와 포상금이 각각 주어졌다.

임상팀 감독과 코치, 선수들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레슬링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2개

를 획득한 서동진 감독(광주체고)이 37명의 임상팀 감독을 대표해 표창장과 포상품을 받았다. 수중민수영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만든 홍혜선 코치(광주체고 수중민수영)도 표창장과 포상금을 받았다.

또 양궁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딴 안산(광주체고 1년), 역도에서 은메달 3개를 수확한 박두환(정광고 3년) 등이 임상 선수를 대표해 표창장과 포상금을 받았다.

스쿼시에서 3연패를 이룬 광주시체육회 여자 스쿼시팀과 수중민수영 여자일반부 표면800m에서 6분56초63으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윤아현(광주시체육회)은 각각 특별상 대표로 기념패를 가져갔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광주체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역대 문정선(광주체고 3년), 사격 김병호(광주체고 3년), 검도 최다원(서석고 2년)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김진수기자 jeans@

순천 전자고 세팍타크로 김혜민·장가연·김수지

자카르타 팔렘방 하계 아경기 테스트 이벤트 참가

순천 전자고 세팍타크로 김혜민(고3), 장가연(고3), 김수지(고2)가 청소년 국가대표로 인도네시아 팔렘방에서 개최되는 제18회 자카르타 팔렘방 하계 아시안경기대회 테스트 이벤트에 참가한다.



김혜민



장가연



김수지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 대회가 펼쳐지며 8개국이 참가해 경쟁을 펼친다. 이번 대회는 세팍타크로 경기장인 ‘JSC 라나우 스타디움 완공’과 함께 2018 인도네시아 아시안경기대회를 대비하기 위해 테스트 이벤트로 진행된다.

2011년 12월 창단된 순천 전자고 세팍타크로팀은 창단 첫해 전국대회 준우승

을 시작으로 각종 전국대회에서 다수의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김혜민, 장가연, 김수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체전 우승을 차지하며 2연패를 달성한 명실상부한 세팍타크로 최고의 선수들이다.

한편 대한민국 청소년국가대표팀은 27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해 선전에 나선다.

/김진수기자 jeans@